

석유화학 기술력 미국의 87% 수준

산자부, 2005년 기준 일본은 98.1 ... 부품소재 기술경쟁력 매우 취약

한국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대체로 일본 기술력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9월2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의 부품소재 분야 기술력에 대한 산업연구원(KIET)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일본 기술을 100으로 상정했을 때 2005년 현재 한국의 기술력은 자동차부품이 85.3, 일반기계부품이 87.2, 전자부품이 89.2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기술력은 2010년에도 자동차부품 94.6, 일반기계부품 97, 전자부품 98.4로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의 기술력은 자동차부품 65.6(2005년), 82.4(2010년), 일반기계부품 9.8(2005년), 85.0(2010년), 전자부품 68.0(2005년), 85.6(2010년)으로 2010년께는 한국을 상당히 뒤쫓아 올 것으로 예견됐다.

철강금속소재 부문은 미국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일본의 기술수준이 2005년 현재 100.1, 한국이 88.1, 중국이 73.0이었으며 2010년에 일본 101.8, 한국 97.6, 중국 86.7로 일본이 미국의 기술을 앞서는 반면 한국 기술은 여전히 일본에 뒤질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 소재는 미국 100을 기준으로 2005년 일본은 98.1, 한국은 87.1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일본 102.3, 한국 94.8로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고 한국은 일본을 앞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은 MP3플레이어 83%, PDP-TV 81.8%, LCD-TV 60%, DMB 수신기 75%, 디지털 캠코더 35%, DVD플레이어 65%, CDMA 휴대폰 57%, GSM 휴대폰 66.9%, PDA 75%, 노트북 PC 46.7%, 초음파영상 진단기 56%, 스캐너 65%이다.

산자부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한 뒤 설비투자를 늘리고 중국이 제조업에서 급부상하고 있어 한국은 부품소재의 기술력 없이는 <넛 크래커>를 돌파하기 어렵다”며 “부품소재 기술력 확보는 동북아 무역구도에서 한국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9/23>